

국민의

제 자리를

찾겠습니다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

SPRING 2019 Vol.60

ACRC NEWSLETTER 2019. Vol.60

SPRING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 한국 실현

국민권익



국민 — 결



국민의 자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소중한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제자리』



우리 곁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제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제자리를 흔드는
다양한 비리와 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엄중한 행정심판으로
국민의 소중한 제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CONTENTS

04

권익 포커스 ①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08 권익 포커스 ②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15

15 권익 르포

국민의 자리를 지킵니다

16 듣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발자취

20 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22 알리다

채용 제도 개선 방안

24

40 국민 생각함

이달의 주제, 생활 속 부패 9개 과제

42 그곳을 걷다

겨울 끝자락, 삼척을 만나다

48 권익 아카이브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은 순간들

12

12 권익 빅데이터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

25

25 ACRC 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뉴스

28 권익, 지금

행정심판총괄과

32 청백리포터가 간다

2019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가다

36 청렴 TOON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50

50 권익 트렌드&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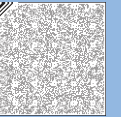
2019 뷰티 트렌드

52 권익의식주

생활의 틈_겨울옷 보관법

54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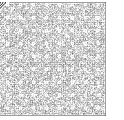
함께 잘 사는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 성과 창출
- +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 +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정부 구현

국민의식 발전에 따라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불공정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2019년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 중이다. 청렴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진을 소개한다.



2019 역점 추진과제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혁신성과 창출



+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강화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신고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신고자 보상 확대

+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규범의 이행력 제고

- 부정청탁·금품수수 취약분야 관련 조례·사규 정비로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 갑질 근절, 민간 부정청탁 금지 등 새로운 행동강령 행위기준 정착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

+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 청렴수준의 주기적 평가·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촉진
- 투명한 청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공·사 영역 접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을 상시 개선
-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강화

+ 나부터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

- 1기관1청렴행정·청렴경영 실천운동 등 청렴한 사회 만들기 범국민 프로젝트 전개
- 청렴에 대한 인식이 행동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반부패 혁신 성공을 위한 반부패정책 총괄기관 조직 재설계

- 권익위 조직을 반부패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기반 공고화
-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패방지과 고충처리 기능은 현행과 같이 통합 수행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국민권익 최우선 보호



+ 국민의 편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적극행정 실현

- 고충민원 빈발분야 개선을 통한 민원 발생의 원천 차단
- 갑질 유발 지침 등을 개선하여 국민중심의 공공사업으로 전환 유도
- 집단민원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행정불신의 확산 차단
-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로 더 촘촘한 권익구제망 구축

+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쇄신을 위한 입체적 처방

- 공직자 스스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감시·관리체계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서민고충 해소를 위한 권익구제 활동 강화

- 고용·산업위기 지속지역 등을 찾아가는 적극적 현장소통으로 경제활동에 활력소 제공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과도한 압류·출국금지 등 관행 개선
- 취약계층·지역의 행정심판 접근성·활용도 제고

+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개선

- 민생안정 4대 중점분야(일자리, 생활안전, 주거·복지, 보건·의료)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
-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로 제도개선의 체감도 제고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구현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안착

-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부패방지·청렴정책 선도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한 반부패·청렴 파트너십 강화
- 반부패·청렴 정책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통로 다양화

+ 민원 빅데이터 분석 강화 및 실시간 개방 확대

- 적시성 있는 민원분석으로 정책개선 지원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서비스 제공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공개로 동일·유사 민원 감축

+ 소통·참여·정책설계 플랫폼 고도화로 국민의 정책참여 실질화

- 온라인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관심 사안 정책화
-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으로 국민이 편리한 소통·참여 실현
- 정부합동민원센터 설치·운영으로 민원상담서비스 혁신(2019.7.)

“국민이 행복한 나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규 발굴과제

생활적폐 청산으로 청렴한 공정사회 실현

+ 부패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 추진

- 생활적폐에 대한 범정부 신속 대응체계 구축·운영
-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여 일자리 공정성 제고
- 카르텔형 지방 토착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
- 고착화된 공공분야 갑질관행을 근원적으로 개선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한 국가청렴도 관리

+ 종합적 청렴수준 진단 시스템 마련 및 이에 근거한 청렴정책 추진

-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 개선 노력 지원
- 공공과 민간부문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국가청렴지수(가칭)’ 개발





내일을 위해,

오늘을
함께하다

.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많은 이들이 한 데 모여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이들을 표창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내일을 공유했던 그날을 조명해 본다.

+ 소통과 화합의 장이 열린다

올해 진행된 제7회 국민권익의 날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내빈과 수상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시작 전에는 회의장 밖 로비에서 캘리그래피와 향수 및 방향제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돼 기념식을 방문한 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오후 2시, 기념식의 막이 올랐다. 식순은 1부<국민권익 이야기>와 2부<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내빈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국민권익 이야기>에서는 1막 ‘나는 공익신고자입니다’, 2막 ‘희망을 찾는 목소리’, 3막 ‘나는 소망합니다’로 구성돼 국민권익보호에 힘쓴 국민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국민권익위에 바라는 역할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력 사건의 공익제보자 전응섭 씨를 초청해 공익제보를 하게 된 계기와 고난, 그리고 청각장애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조명하며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다.

●

“저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함께 만든 오늘, 만들어 갈 내일

이어 진행된 2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7개 단체, 101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1점, 포장 1점을 포함해 정부포상 41점, 권익위원장 표창 67점을 수여했다. 분야별 수상자를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 청탁금지법 제정운동,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등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유한범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국민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확대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지연 환경부 부이사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밖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흥현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장이 대통령표창을, 장애등급 이의신청 절차 개선 등 행정심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설영춘 경기도 주무관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고충 해소라는 주어진 소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특권과 반칙 없는 청렴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성과 창출, 취약계층 권익의 최우선 보호, 국민소통창구 혁신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권과 반칙 없는 청렴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

제7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일시 2019.2.27(수) 14:00 ~ 15:30 /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4층)



“특권과 반칙 없는 ‘청렴한 사회’,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 갑니다.”

●



WRITE
편집실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빅데이터가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소통에 시동을 거는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의 소리를 보여 드립니다



행정은 쉽게, 국민은 편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현황판,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이하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난 1월 30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그간 공공기관에서만 공유됐던 민원 빅데이터를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민원창구를 총망라하여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청인이, 무슨 민원을 제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별, 분야별 민원 통계와 급상승하는 민원 키워드 등 45종의 민원 정보를 시각화하고, 주·월간 민원 동향 등 국민권익위가 분석한 각종 보고서 원문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누구나 쉽게 원자료(Raw Data)를 내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연구와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에 민원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pen A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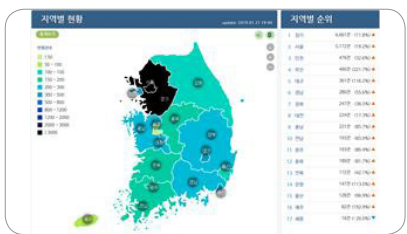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 공공데이터 개방(Open API)
인터넷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 화면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발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 Open-API 사용법
 - ①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인증키 신청
 - ② 승인 및 인증키 발급
 - ③ 데이터 개방 정보 활용

- + Open-API를 사용하려면 인증키가 필요합니다.
- + 인증키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공유가 불가합니다.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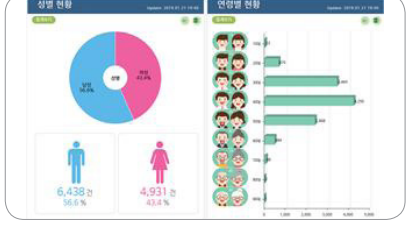
기관별 현황



민원키워드 현황



성별/연령별 현황



민원 예보



분석 리포트



동의를 통한 정보공개

민원 빅데이터 서비스는 민원인과 처리기관에서 공개에 동의한 민원답변 원문도 공개한다. 단, 고발·신고 등 제보성 민원,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이 곤란한 민원 등은 제외된다. 현재 자체 누리집에서 민원답변을 공개하고 있는 80개 기관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한 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 향후에는 전체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처리 사례

Q. 장애인 차량 과태료 등 감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감경대상자는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3) 장애인(1급~3급),
- 4) 상이유공자(1급~3급),
- 5) 미성년자(만14세~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등록부상 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조건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50% 감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상인 자녀와 공동소유로 등록 할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감경대상이 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3-240-2124

Q.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학교를 잘못 입력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

신청기간 중 : 국가장학금 신청수정(예시 : 1차 신청자는 1차 신청기간 중 수정 후 재신청 가능, 2차 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 중 신청수정 후 재신청 가능)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신청현황에서 우측 하단 “신청서 수정” 클릭 후 진행

※ 신청수정 시 신청취소되며 신청취소 후 재신청 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기간 이후 : 대학명 오신청 확인 또는 신청대학과 최종 등록 대학이 변경 될 경우 현 소속대학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일정 마감 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 소속학교 오신청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 02-6222-6060

‘클릭’ 한 번에 다 보여요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875만여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 정보를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PC 접속방법



- ① 국민신문고 누리집
www.epeople.go.kr 민원 빅데이터 메뉴 클릭
- ②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
바로 접속(bigdata.epeople.go.kr)

모바일 접속방법



- ① 검색창에 ‘m.epeople.go.kr’ 입력
- ② 한 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배너 클릭
- ③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
바로 접속(bigdata.epeople.go.kr)

권익 르포 ① 공공기관 채용 비리

2018.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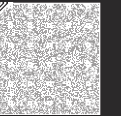
2019. 1.31.

국민의 자리를 지킵니다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87일간의 기록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발자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

지난해 11월 6일

정부는 공공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각오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앞장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추진 배경과 결과,

후속 조치의 이야기를 이곳에 모았다.



STEP
01

국민의 소중한 자리를 지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립 배경

2017년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의 채용 비리 의혹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 제기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8년 11월 6일 ~ 2019년 1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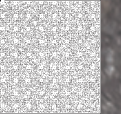
대상기관 1,453개 공공기관

- 공운법 상 공공기관 338개(기획재정부)

-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 268개(국민권익위)

점검대상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STEP
02

채용비리 막순환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역할

조사는 1,453개 공공 기관 중 248개(채용 미실시, 감사원 감사 등)를 제외한 1,205개 기관의 2017년 채용비리 특별 점검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채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우선 감독 부처와 지자체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차 전수조사 결과 비리 혐의가 높거나 주요 제보 내지 신고가 있는 사안은 그 기관을 위주로 정부 합동으로 2차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특별 점검과 달라진 점

<u>조사대상 확대</u>	기간제 외 정규직 전환자 중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친인척 특혜 채용 여부 중점 조사
<u>조사방식 체계화</u>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 제작 배포
<u>조사 전문화</u>	경찰청의 일선 수사관(약 80명)과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약 52명)을 2차 심층 조사에 투입

STEP
03

용기 있는 신고자를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

신고자의 신분 보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중앙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의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신고자의 신분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가령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금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만약 신고자가 내부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비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고,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운영

<u>대상기관</u>	공공기관(338개), 지방공공기관(847개), 기타 공직유관단체(1,141)개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관련 비리
<u>신고대상</u>	공공기관 인사 채용 관련 부패행위(청탁 포함)
<u>신고방법</u>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세종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2017년 채용비리 특별 점검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채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그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 및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2018.11.6. - 2019. 1.31.

조사 결과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기관수	조사 기관수	적발 기관수	지적 사항	채용비리			업무 부주의		
					소계	수사 의뢰	징계	소계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8	333	280	889	84	19	65	805	420	385
지방공공기관	847	634	458	1,145	62	9	53	1,083	560	523
기타공직유관단체	268	238	172	600	36	8	28	564	180	384
합계	1,453	1,205	910	2,634	182	36	146	2,452	1,160	1,292

채용비리 적발
총 182 건

36 수사 의뢰
(건)
146 징계요구
(건)



신규채용
158 건

30 수사 의뢰
(건) 128 징계요구
(건)

정규직 전환
24 건

6 수사 의뢰
(건) 18 징계요구
(건)

기관별

84 공공기관 (건) 62 지방공공기관 (건) 36 기타공직유관단체 (건)

유형별

158 신규채용 분야 (건) 24 정규직 전환 분야 (건)



국민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채용 제도 개선 방안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는 채용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의 재량을 축소해 보다 촘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선순환 정착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온정적 제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채용비리자의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을 제한하며,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일회성 적발과 사후 처벌만으로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매년 전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모든 채용의 비리 여부, 공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관련자 처벌 및 제도개선 이행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은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특히 국공립병원,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 진단을 실시해, 즉시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기관장 등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하는 특별채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 채용, 위탁 채용 등을 활성화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고용부 워크넷에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채용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제공〉



〈채용비리 점검 및 집중관리제도 개요〉

- ① 정기 전수조사 | 매년 1분기
(대상) 전체 공공기관
(점검사항) 채용 전반 운영의 공정성
- ② 취약기관 집중관리 | 매년 3~4분기
(대상) 관리 취약기관
(점검사항) 채용제도 및 운영 전반, 임직원의 공정성 인식 등
- ③ 수시점검 | 수시
(대상) 공공기관
(점검사항) 이슈화된 취약 분야 및 기관 등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가족 채용 특혜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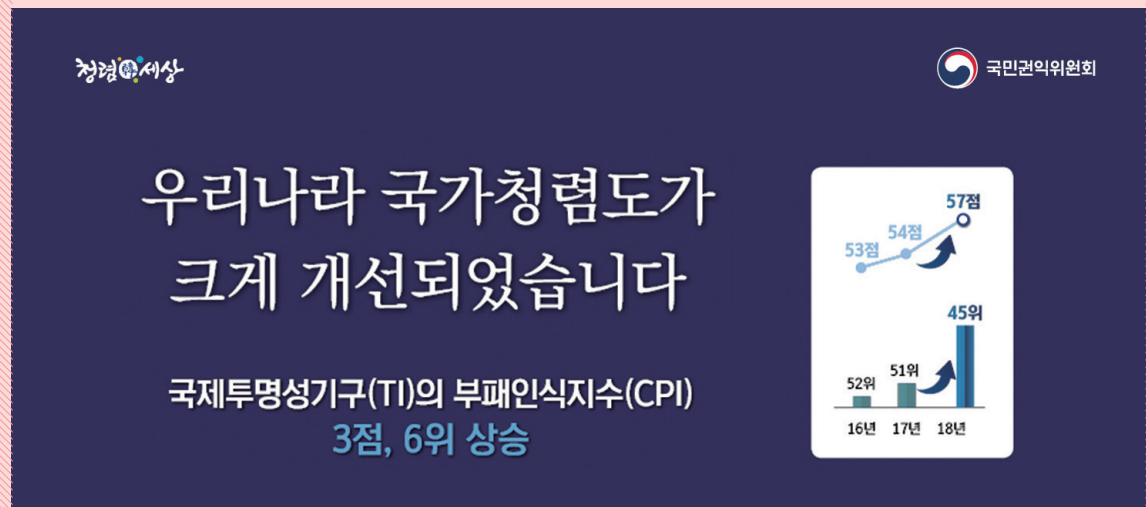
친인척 부당 채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계약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ACRC NEWS

2019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와 정책 이야기



2018년 CPI 발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전년 대비
부패인식지수(CPI) 상승

i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권익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총괄과 044-200-7691

1월 29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에 들었다.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국가 순위는 6단계 상승하였으며, 부패인식지수가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전략적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부패가 적발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생활 속 적폐와 일부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카르텔형 토착비리의 근원적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실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법정부 차원의 첫 발걸음

제1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9개의 과제 논의

정부는 2018년 12월 10일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개설 의료기관 비리 등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생활 속 부패의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이외에도 국민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청렴정책모니터단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하여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권의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총괄과 044-200-7711

신고처리 담당자와 정보 공유

신고자 보호 설명회 권역별 순회교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에 대한 신고처리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계획했다. 설명회에서는 부패신고나 공익신고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접수·처리되는 ‘신고성 민원’ 처리에 대한 주의 사항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권의 홈페이지 www.acrc.go.kr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4



제도개선 과제 공모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지속 추진

국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73건의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또한 자녀 양육 지원,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2019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 주요 정보의 비공개 관행,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불편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

따뜻한 행정심판을 구현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직접 선임·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국선대리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익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성별·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50명의 변호사·공인노무사를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위촉하였으며, 행정심판 청구인은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구제 확대와 행정심판의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7



기업분쟁해결

재활용 처리업체 선정 방식 개선 요구

1999년 A발전회사가 화력발전소를 개소하자, 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는데, 그 중에는 화력발전 시 배출되는 석탄회 판매 권한을 A발전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2007년 지역발전위원회는 같은 지역 기업인 B회사를 석탄회 재활용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었으며, 2012년에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계약 기간 10년동안 지역발전위원회와 B회사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고소·고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4년 A발전회사가 추가적인 석탄회 판

매 권한마저 지역발전위원회에 위임하자, 동 위원회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B회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그동안 쌓였던 불협화음이 극으로 치달았다. 이에 B회사는 A발전회사가 민간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 업체 선정 권한 전체를 위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업체 선정을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수년간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향후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나 분쟁을 대비해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A발전회사와 지역발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 선정 방식을 마련중에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권의 홈페이지 www.acrc.go.kr

행정기관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때로 그 과정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들도 분명 있게 마련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행정심판총괄과는 바로 이러한 행정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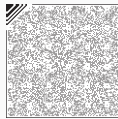


행정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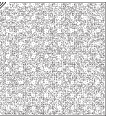
+ 행정심판총괄과

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면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심판정이 있다. 행정처분 과정이 공정했는지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사안을 살피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실현하는 장소다. 아홉 명의 행정심판 위원들과 함께 사건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한자리에 모여 사건 심리를 진행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하나다. 권고 형식인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더욱 강력한 절차다. 비용이 들고 때에 따라 3심까지 갈 수 있는 행정소송과 비교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 폭이 넓다. 이 때문에 더욱 효율적으로 국민의 권익 구제가 가능하다. 행정심판총괄과는 행정심판국의 5개 심판부서 및 운전심판팀과 협업해 행정심판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세신 총괄과장, 김홍진 서기관, 박종혁 사무관, 이철민 주무관
(뒷줄 왼쪽부터) 김종승 주무관, 유선미 주무관, 한상호 주무관, 박광덕 주무관, 이다인 주무관





+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다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심판총괄과는 행정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비롯해 행정심판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지요.”

김세신 과장이 행정심판총괄과를 간략히 소개한다. ‘지원부서’라고 간단히 소개했지만, 행정심판총괄과는 알고 보면 복잡하고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현재 행정심판총괄과는 행정심판제도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행정·제도계와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위원회 안전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상정 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제도 연구 개선 및 총괄 조정,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한 각종 신청서 접수와 지도,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및 개선 권고, 행정심판 관련 민원 안내 상담 처리 및 교육 홍보,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운영, 행정심판 재결례의 조사분석과 행정심판 관련 통계 작성 등 행정심판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18명이라는 대인원이 이곳에 소속되어 활약 중이다.

일반 행정이나 관리는 물론 사건 접수와 민원, 정보 공개 등 행정심판과 연관된 모든 업무를 알아야 하고 또 지원해야 하기에 직원들의 전문 지식은 필수다. 그래서 행정심판총괄과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전문 지식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변호사를 초빙해 법 공부를 하기도 하고, 민원 상담에 필요한 고객만족 서비스 훈련을 받기도 한다. 이 모든 활동은 오직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일이다.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을 구제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보람이 밀려든다.

“지난해 행정심판을 통해 6·25전쟁 참전 파독 간호사를 참전 유공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쟁이 워낙 예전의 일이고 당시 시대적 특성상 민간인 참전자 명단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고령의 청구인이 전쟁 참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죠. 그때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조사와 기술심리를 진행해 청구인의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용 재결했습니다. 덕분에 청구인이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해마다 청구되는 행정심판사건은 무려 25,000여 건. 그만큼 구성원들이 일당백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도 많다. 하지만 민원인을 상담할 때마다 행정심판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다른 그들은 책임감을 안고 매일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다.

행정심판 신고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 1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2 처분청** 청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답변서 작성, 위원회에 제출
- 3 위원회** 처분청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 관련 사실조사·확인 및 법률 검토 등 사건심리를 통한 재결, 재결서 작성 후 당사자 송달로 처리 절차 완료
- 4 청구인** 위원회 재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더욱 효과적인 행정심판을 위해

행정심판총괄과는 행정심판사건 처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접속하면 절차 안내부터 사건 청구, 처리 과정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현재 66개 기관이 허브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기관을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는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심판과 소송은 승패가 나뉘는 구조로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14개 사건이 조정을 통해 협의를 마쳤다. 11월에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했다.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50명이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취약계층의 행정심판을 돕고 있다.

앞으로 행정심판총괄과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빨리 안착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결국 행정심판총괄과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 구제. 행정심판총괄과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Mini Interview



김홍진 서기관

“2017년 5월에 행정심판총괄과에 와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행정심판 법령 개정 작업과 관련한 실무와 제도 개선, 행정심판국 업무 계획 수립 등의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행정심판총괄과가 행정심판국의 여러 부서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하지만 신구의 조화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구성원들 덕분에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훌륭한 역량을 지닌 분들이 한곳에 모인 덕분에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철민 주무관

지난 2월 25일부로 행정심판총괄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김홍진 서기관님과 짝을 이루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실제 행정심판사건을 검토하는 재정경제심판과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심판총괄과에 왔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감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길지 않은 실무 경험이지만 정책과 잘 맞물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행정심판국의 분위기를 높이는 동력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19 청백리포터 발대식’이 지난 1월 31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나온 발걸음과 청백리포터들이 나아가야 할 걸음의 교차로, 배움과 설렘 가득했던 그날을 소개합니다.



청 백 리 포 터 문 에 찬

청백리포터가
2019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가다
지금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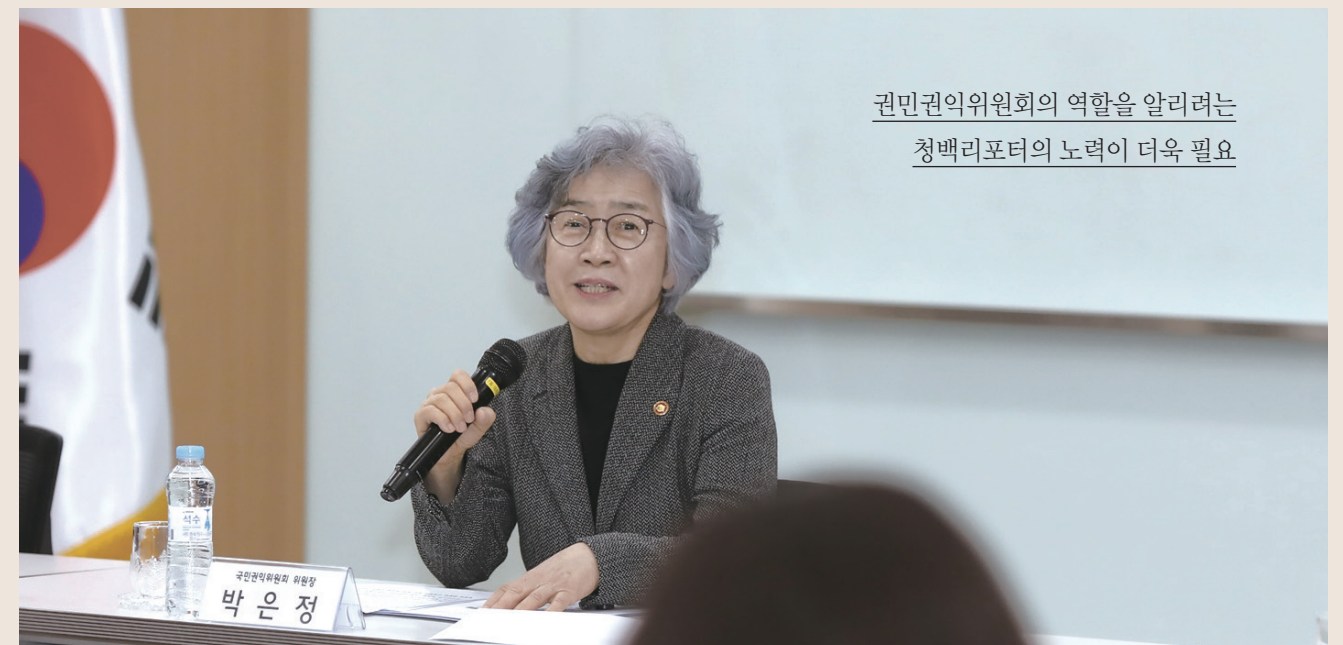
발대식을 통해 청백리포터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2019 청백리포터 대장정의 시작

국민의례 이후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인사 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백리포터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리려는 청백리포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라며 청백리포터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대변인과 김동국 홍보담당관도 발대식에 참석했는데요. 현장조정, 이동신문고 등 청백리포터의 현장 활동을 소개하며 행사에 참석한 2019 청백리포터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한 대변인은 “현장에서 다양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조언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청백리포터로서의 역할이 한층 더 기대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을 빛내 줄 청백리포터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직접 청백리포터와 축하의 인사를 나누며 위촉장을 전달하였습니다. 2019 청백리포터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 지원동기, 나이, 전공, 장래희망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청백리포터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활동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알리려는
청백리포터의 노력이 더욱 필요



기사 작성에 있어,
명쾌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선배들의 조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가는
소통의 시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다

발대식에는 2018년에 이어 올해도 활동하는 청백리포터도 있었는데요,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며 활동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오병호 기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고 전했고, 특히 청백리포터 활동을 통해 인간적인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장 취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언도 있었는데요. 사진 찍을 때의 예절과 인터뷰 준비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포토존 활용, 인터뷰 시 기자단 명함 지참, 명함의 활용 방안 등을 말하며 앞으로 청백리포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흥해진 기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드뉴스, 어떻게 만들까?’라는 주제로 앞으로의 청백리포터 활동에 대한 실용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사 소재, 이

미지, 폰트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기사를 작성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폰트를 적절히 고르는 방법 등 시각적인 요소까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및 폰트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과 기사 작성을 위해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도 청백리포터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되돌아보다

다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순서로 부패방지국에 대한 업무를 청렴총괄과 이범석 사무관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청렴의 가치와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반부패·청렴’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기관 청렴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요. 부패인식지수를 나타내는 CPI에 따르면 2017년 54점에서 지난해 57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순위 또한 상승하여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45위로 6단계 상승했습니다. 한편, 자리에 참석한 청백리포터를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측정하기도 했는데요.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명, 보통은 12명,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도록 올 한 해 열심히 반부패·청렴 정책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사보호국 심사기획과 이선 주무관은 심사보호국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새롭게 출범한 국이라고 합니다.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



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부패·공익신고는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과 청렴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건전한 시민의식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입니다.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서상원 조사관은 옴부즈만 제도 설명과 함께 사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군 관련 조사관으로 일할 때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옴부즈만 제도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김홍진 사무관의 행정심판제도 설명이 이어졌습

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대식에서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익개선정책국 업무는 제도개선총괄과 강현희 사무관이 소개하였습니다.

권익개선정책국은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대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 운영을 관리합니다.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권익 개선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제도가 국민권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자리, 출산, 육아, 생활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해 다양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발대식을 마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발대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기자님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훨씬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대한 부푼 기대가 생겼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권익위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청백리포터 응원해주세요!



공직부문 대상 위대한 유산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은 ‘정직함’이다.

조금 힘들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묵묵하게 할 일을 해나갈 때,

청렴한 사회로 향하는 작은 걸음이 시작된다.

이번호에는 2018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사연수기

공직부문 대상 수상작을 소개한다. 아버지의 ‘위대한 유산’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생각해 볼 때다.



아버지는 지천명이 넘어 쌀농사를 시작한 늦깎이 농부이시다.

2002년 여름에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본연의 사업을 정리하시고 그달 고향으로 귀농하셨다.



우리 고향은 대부분의 농가가 쌀농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었고, 예전부터 기후와 토양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쌀농사에 적합해 곡창지대로 명성이 높았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에서도 아버지에게 쌀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년 일손이 부족할 때 간간이 논일을 거드시며 할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다. 동네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극복하셨지만,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은 늘어가는 주름만큼이나 깊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논에 정성을 다하셨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 그 정성을 말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 해 여름 태풍 루사를 몰고 와서 논의 일부를 유실시켰다. 그나마 유실이 적었던 논에는 벼의 도복으로 초보 농부의 마음까지 할퀴어 버렸다. 나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부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휴가를 이용하여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다. 다시 세우고 다져 놓은 논둑에 걸터앉아 참을 먹으며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쭙어 보았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할아버지는 70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의 말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질퍽이는 논으로 다시 들어가 일을 시작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아버지를 위해 땀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음 날에도 동이 트기 전에 논으로 나가셨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잘 쉬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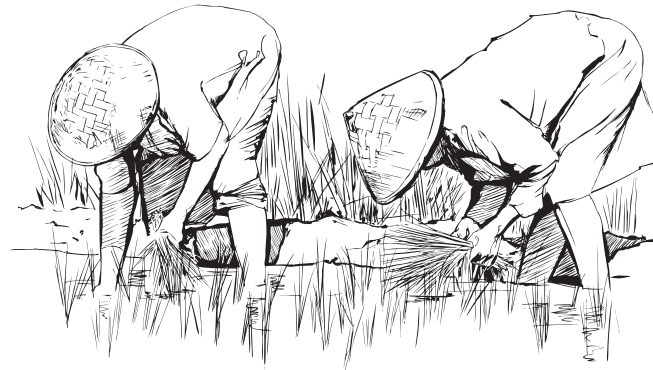
벼는 주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란다고 하더구나.”

묵직한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되던 사업을 그만두고 아직 할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논의 쓰러진 벼를 보시면서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이후로 아버지는 부족한 일손을 동네 어르신들과 품앗이를 하며 메우셨다. 살아남은 벼들은 아버지의 정성을 아는지 씨앗이 굵어지며 잘 여물고 있었다. 10월이 되면서 아버지는 상강이 오기 전에 벼를 수확하시겠다고 하셨다. 나는 그 시기에 맞추어 휴가를 내고 일손을 도우러 고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생각했던 것보다 벼들이 잘 자랐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께서 시작을 잘해 놓으셔서 잘 자란 것 같구나”

일부 농가는 추수 후에 남은 벼짚을 축산 농가에 팔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벼짚을 팔지 않으시고 퇴비를 만들어 땅이 열기 전에 밑거름을 치고 갈이를 해 놓으셔서 땅심을 높이셨다고 한다. 그래서 벼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 태풍에도 잘 견뎌 준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지만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보통 1마지기 논에서 쌀 4가마니가 나와야 풍년이라는데, 할아버지의 논에서는 2가마니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며칠간의 추수를 마치고 아버지는 그동안 농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동네 어르신들을 집으로 모시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다. 한분 한분께 막걸리를 올리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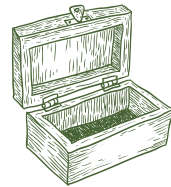
“어르신들 덕분에 부친께서 시작하신 농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네 부친 고집은 말도 못해!
매년 조합에 계약한 양을 못 채우셨어.”
“고집이 밥 먹여 주나?”
농부들도 시대를 따라가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조합에서는 지역 농민들과 그해 쌀의 수확량을 판단하고 계약한 뒤, 추수 후 생산된 쌀을 통합으로 거두고 도정하여 고향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약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서 매년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아버지께 할아버지처럼 뚝한 고집으로 손해 보지 말라고 하셨다. 특히 이번과 같이 태풍으로 동네의 평균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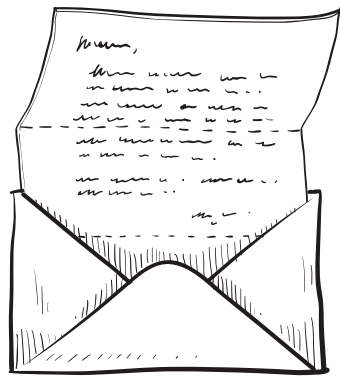
량이 적을 때는 더욱 함께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설득하셨다. 일부 농민들과 도정 공장이 조합과 계약한 양을 채우기 위해 지방에서 생산된 쌀을 값싸게 사들인 뒤, 고향에서 생산된 쌀과 7:3의 비율로 섞어 조합에 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은 조합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농가와 도정 공장이 부당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긴 시간의 설득에도 정중히 사양하셨다. 어르신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대를 이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 힘든 농사를 짓냐고 말씀을 하시고는 취기 오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다. 나는 올해 수확량도 좋지 않았고, 앞으로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 아버지가 걱정되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봐야 하는 분들이라 동의를 안 하시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자개함을 내게 건네시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셨다. 자개함 안에는 고이 접은 몇 해 지난 달력의 낱장들이 있었다. 그 낱장 뒤편에는 장문의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쌀은 항상 변함없는 맛에 질리지도 않는 것이 주식인 밥을 만들 수 있고, 떡과 술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더욱 쌀농사를 잘하고 싶다. 조상님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직접 손매기를 하시며 잡초를 뽑으셨고, 일렁이는 푸른 벼들을 보며 풍년을 기원하셨다. 아이 하나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한 동네가 정성을 쏟아야 하듯이 쌀농사도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잘 자란다. 그래서 농사에는 정성이 있어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 밥을 매일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빼빼돌빼돌 적힌 글에는 할아버지의 70년 쌀농사에 대한 소신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서 왜 쌀농사를 잘 짓고 싶으셨는지 그래서야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가을걷이가 끝나고 겨울을 준비할 때 전국을 떠돌며 하는 소식을 매스컴으로 접하게 되었다. 몇몇 지방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쌀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우리 고향 역시도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결국 수년간 혼합미를 공급했던 고향의 농민들이 적발되었고, 그 사건은 고향 쌀의 신뢰가 저하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한 그 메모가 귀농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어떠한 유혹과 인고의 시간에도 흔들림 없는 소신을 갖게 됐던 이유라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의 풍년을 더욱 바라고 계셨던 것 같다. 나는 이날 이후로 선한 고집의 소유자가 최후에 웃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정직’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잘 지켜서 마음에 굴곡이 없는 청림한 군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에 생각이 더해질 때 우리는 더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수렴하고,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그린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현재 개선 중인 생활 속 부패 9개 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 보았다.

국민을 위한 생각함

이달의 주제, <생활 속 부패 9개 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리

권력형 비리나 금품수수 등의 부패문제 해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치원비리 등 생활 속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생활 속 부패 9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지속적인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노력을 위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국민생각함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 ☎ 1600-8172



현재 개선 중인 생활 속 부패 9대 과제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분야 갑질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지역 토착비리 개선	탈세행위 근절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안전 분야 부패방지

국민의 소리

김영*

안전 분야에서는 민방위나 화재 예방, 소방훈련에서 대충대충 하는 것도 적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진지하게 임하거나 실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일*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갑질 문제가 심각해요. 해결 대안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참여, 악의적인 민원 처벌 제도적 장치 강화 등을 요구합니다.

신윤*

군납 비리에 대해서는 일반 법보다 10배 이상 높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납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우리 군을 지금보다 더 막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장애인, 노인들의 지원을 가로채 사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대한 감시 강화가 필요합니다.

비공개

직장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력 등 갑질을 신고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yoo***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금액이 달랐습니다. 공공연한 웨딩업계의 탈세 행위를 꼭 집중 단속해주길 바랍니다.



비탈진 도로를 지나자
탁 트인 시야로
삼척의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 위를 일렁이는 파도는
새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여행자의 방문을 반겼다.

겨울의 끝자락에 마주한 삼척의 바다.
우린 그날, 한 편의 영화 속으로 걸었다.

그날, 겨울 끝자락, 삼척을 만나다 바다





장호항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삼척의 장호항은 작은 어촌 마을이다. 장호항에 들어서자 동해 바다 특유의 색채와 소음, 그리고 냄새가 이방인의 발길을 반긴다. 해안을 따라 빙 둘러 자리한 장호항은 가돌 것은 가두고, 내어줄 것은 내어 준 모양새다. 그래서 장호항에 부딪히는 파도는 힘이 있고, 해안에 불어오는 바람은 질감이 있다. 장호항을 눈에 담는 사이, 하늘을 유영하는 붉은 점 하나가 눈에 띈다. 지난 2017년 개장한 삼척 해상 케이블카다. 케이블카는 약 900M 길이의 바다를 가로지른다. 질푸른 바다와 새하얀 하늘, 그리고 바다와 하늘의 중간을 유유히 가르는 케이블카의 모습이 이국적이다. 케이블카에 올라타자 발아

래로 삼척의 바다가 펼쳐진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바다의 표면과 해안가로 밀려오는 파도를 사뿐히 밟고 올라선 듯 묘한 기분이 든다. 지상에서 볼 수 없었던 바다의 다른 얼굴을 마주한 느낌이다. 3월의 장호해수욕장은 많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던 여름을 뒤로하고 자신을 기르고, 채우는 시간을 갖는 듯 고요했다. 해변으로 세차게 밀려오는 파도만이 장호해수욕장의 고단함을 간헐적으로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다도 사람처럼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다면, 그를 위로해 주는 건 파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푸른 바다에는
고래가 있어야지,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는다면
청년이 아니지



에피소드, 하나

하늘과 바다가 만나다



에피소드, 둘

푸른 바다에는 고래가 있어야지



영롱한 푸른빛으로 물든
삼척의 바다와 하늘

마을과 바다를 잇는 데크길을 건너 올라가면 여행객을 위한 작은 정자가 마련돼 있다. 그리고 정자에서 내려다본 삼척의 바다는 잠시 모든 것을 잊어도 좋을 만큼 경이롭고 수려했다. 해안 위로 솟은 기암괴석 사이를 굽이쳐 쏟아지는 하얀 물줄기와 괴석 사이에 둘러져 가뒀진 투명한 바닷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졌다. 장호항이 한국의 나폴리로 불린다는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었다.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형태 덕분에 여름이면 장호항은 투명 카약과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도 각광받는다. 암석 위에 고래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다. ‘푸른 바다에는 고래가 있어야지,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는다면 청년이 아니지’ 정호승 시인이 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가 생각나게 하는 풍경이었다. 장호항을 향해 일렁이는 파도는 거칠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굽이치는 파도를 보고 있노라면 절로 힘이 나고 의욕을 추스르게 하는 묘함이 느껴진다.

에피소드, 셋

애랑이와 덕배의 전설

장호항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해신당공원이 자리한다. 삼척에는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남근 숭배 민속이 전래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해신당이 있는 신남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엔 결혼을 약속한 애랑이와 덕배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애랑이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죽고, 이후 바다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애랑이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남근 모양의 조형물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게 됐고 이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전설이 이어진다. 해신당공원은 어촌민의 생활을 느낄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과 남근조각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표소를 지나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삼척의 여느 공간이 그렇듯 넓게 펼쳐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높은 해발에 위치한 해신당공원은 아름다운 삼척의 바다를 카메라에 담기 위한 사진가들의 촬영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해신당공원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2019 SPRING

ACRC News letter



도경리역 영동선기차역

강원도 삼척시 도경북길 126

에피소드, 넷

시간이 멈춘 간이역

해 질 녘, 삼척의 바다를 뒤로하고 향한 곳은 영동선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도경리역이다. 마치 옛 시대를 고증하는 드라마 세트장처럼 시간이 멈춰 버린 듯한 모습이다. 도경리역은 1939년 5월,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고, 근대 양식 건축물로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문화재 제298호로 지정됐다. 창문 안으로 보이는 대합실에는 이용객을 위한 작은 나무 의자와 구간별 열차 요금을 안내하는 안내판, 역무원이 사용했던 통신 장비 등 옛 시간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경리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조그마한 상권과 인가가 형성돼 있었지만, 운행이 중단된 이후로는 인기척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막함이 느껴지는 공간이 됐다. 간간이 들려오는 열차 소리만이 이곳이 많은 이들이 오고 갔던 기차역이었음을 닮은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의문을 떠올릴 때가 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삶의 답을 찾아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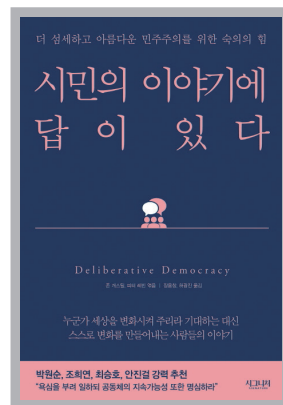
이대로는

01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 존 개스틸, 피터 레빈 저

다양한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쪽도 쉽지 않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세상을 변화시켜 주리라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책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속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실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속의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모색한다. '좋은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갖고 있다면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답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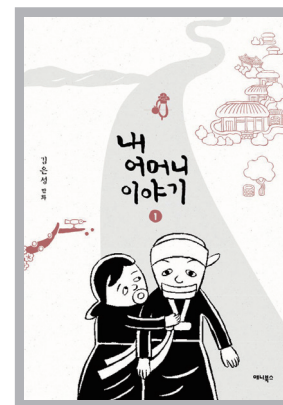
시민을 위한 책갈피

02

내 어머니 이야기

\ 김은성 저

알쓸신잡3 김영하 작가의 추천도서로 절판된 책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함경도 북청에서 보낸 어머니의 풍성했던 어린 시절과 결혼 전 이야기를 다뤘던 1부에 이어 2부, 3부, 4부에서는 어머니의 결혼과 한국 전쟁, 피난, 남한에서의 정착 과정, 가족의 현재를 그려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삶이 발 딛고 선 땅 아래 지층의 단면들을 드러내 보인다. 모든 대사와 내레이션에 구술자인 어머니의 입말을 최대한 살렸다.



03

시민의 교양

\ 채사장 저

누구나 나면서부터 '시민'이 된다. 하지만 혹자는 자신이 시민임을 망각한 채 혹은 외면한 채 현실에 휩쓸려 제대로 된 선택을 못 하면서 살고 있다. 시민의 생각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책은 인문학 지식을 단순히 이론에 그치게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하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한다. 이 책을 읽은 후 뉴스와 신문을 본다면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04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 피터 반스 저

헬조선과 흙수저. 중산층의 몰락과 부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상징하는 우리 시대의 가슴 아픈 신조어들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 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받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 잡힌 자본주의로 나아가는지 그 해법을 보여 준다.



안되겠다 싶은 순간들

밝고 화사한 컬러, 화려한 패턴이 거리를 수놓는 계절, ‘봄’이 다가왔다.
이제 두툼한 아우터는 옷장에 넣고 가볍고 산뜻한 옷과 액세서리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자.

우아하고 상큼한 컬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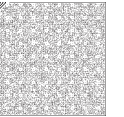
물들인 봄



Beige
Coral

2019년 봄/여름 트렌드 컬러로 베이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레트로 패션에서 새로움이 가미된 뉴트로 패션으로 이어졌으며, 미국 색채연구소 팬톤에서 발표한 2019년 트렌드 컬러인 코럴도 시즌 트렌드 컬러로 대두되고 있다.

Cooperation LORENA ANTONIAZZI 02-772-3416, MARITA HUURINAINEN 1899-7092, MOYNAT 02-596-9620, BONPOINT 02-3444-3356, BROOKS BROTHERS 1899-1818, &OTHER STORIES 1800-1926, J.RIUM 070-8729-9391, FORMEL CAMELE www.tribons.com, POLICE 031-689-4113.



고급스럽고
편안한 멋을
원한다면



역동성과
활기찬 멋을
원한다면

+ Beige

2019 S/S 시즌, 로레나 안토니아찌는 ‘사토리얼 사파리(Sartorial Safari)’를 키워드로 한 컬렉션을 진행했다. 슈퍼화이트, 고트 밀크, 스카이 블루 등을 메인 컬러로 사용했으며, 린넨, 워터 프루프 코튼 등 직접 직조한 패브릭과 니트웨어를 선보였다. 베이지 컬러는 데님팬츠, 치노팬츠, 슬렉스, 스커트 등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리며, 스타일링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강조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컬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른 컬러와 믹스 매치를 하기에 적합하다.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선택하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할 수 있고, 다른 톤의 아이템을 레이어링하면 감각적인 톤온톤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1. 부드러운 촉감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하게 착용이 가능한 니트 스웨터, 제이리움.
2. 프랑스 여배우 ‘가브리엘 레잔(Gabrielle Rejane)’을 오마주해 탄생한 ‘레잔 백’, 모이나.
3. 4. 황금 사막의 우아한 사파리 여행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원피스, 로레나 안토니아찌.
5. 다양한 의상에 매치 가능한 로퍼, 마리티카 후리나이벤.

+ Coral

2019년 팬톤 컬러로 선정된 리빙 코럴을 비롯하여, 오렌지, 파스텔컬러 등 베이지 컬러를 봄 스타일링에 함께 활용해보자. 리빙 코럴 컬러는 산호에서 발견되는 자연색 계열로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제품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 프랑스 브랜드 봉쁘앙은 2019 S/S 시즌을 맞아해 블러쉬 핑크, 오렌지, 그래스 그린 등을 키 컬러로 사용해 열대 향기가 넘치는 지중해를 담은 것. 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라인의 의상을 가벼운 면 블라우스와 섬세한 소재의 니트웨어와 함께 연출하여 한층 매력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이처럼 의상에 코럴, 핑크 등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다른 소재를 매치하면 멋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쉽고 편안하게 연출할 수 있는 레드폴리스 스트라이프 포플린 스포츠 셔츠, 브룩스 브라더스.
7. 8. 화사한 핑크 계열 원피스, 앤 아더 스토리즈.
9. 브랜드 고유의 세련미가 느껴지는 가브리엘 백, 모이나.
10. 열대 향기가 넘치는 지중해 분위기를 담은 니트와 원피스, 봉쁘앙

See You Again, 겨울옷

추웠던 겨울, 우리 몸을 지켜준 고마운 겨울옷.
그렇다고 봄이 찾아 온 지금, 계속 꺼내둘 순 없다.
겨울옷을 옷장에 넣어보겠다고 하지만, 큰 부피와
다양한 소재 탓에 어디에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난감하다. 좋은 방법 있을까?

생활의 팁_겨울옷 보관법

leather 가죽

가죽옷은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털고 얼룩이 있다면 전용 클리너를 이용해 닦는다. 세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재가 상할 수 있어 세탁은 최대한 줄이는 것을 권한다. 또한, 가죽소재 특성상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전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주어야 한다.



오리 털이나 거위 털과 같은 고급 소재의 패딩은 드라이클리닝으로 세탁한다. 패딩 점퍼의 경우 오래 걸어두지 말고 평평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패딩을 접을 때에는 양팔을 안쪽으로 접은 뒤에 밑단부터 둥글게 재킷을 말아 올려 후드 부분에 넣어주면 부피도 줄이고 보관하기에 편리하다.

패딩 padding

다시 만날 겨울옷
어떻게 보관 해야 할까?

sweater 캐시미어 스웨터

보관 전, 향균 탈취 기능이 있는 캐시미어 스프레이를 뿌린 후, 통풍 시킨다. 소재의 특성상 잘못 접으면 자국이 남게 되므로 최대한 깔끔하게 접어 보관한다. 옷 사이에 습자지나 한지를 넣어서 보관하면 습기를 방지할 수 있다.



knit

니트

니트는 드라이클리닝 후 패브릭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 냄새를 제거한다. 니트는 장기간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면 늘어나므로, 니트를 반으로 접은 뒤에 같은 크기의 습자지나 한지를 사이에 끼워 통풍이 잘되는 바구니에 담아 보관한다.

wool coat 울 코트

좋은 소재의 코트는 세작 과정에서 옷감이 마모되지 않도록 너무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분적으로 오염된 경우 세제가 풀어진 물을 깨끗한 천에 묻혀 닦아내고,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경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기름기를 날린다.



작은 의류 소품 정리의 핵심은 '공간 분할'. 우유팩을 서랍장 크기에 맞춰 그 안을 채웁니다. 부피가 큰 스타킹은 1000ml 우유팩 옆부분을 잘라서 넓혀 사용합니다. 한 철 쉬었다 신는 양말은 형견 주머니에 한꺼번에 넣어 정리합니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독자의
소리

지난 <겨울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김성경(경기도 의정부시)

국민콜 110 상담사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월평균 2,100여 건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보호방안 마련 이후 악성민원이 줄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숙(서울시 관악구)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고충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동신문고’ 기사를 읽으며, 국민 한 사람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국민권익위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게 전국 방방곡곡 더 달려주세요.

남종현(경기도 남양주시)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대한민국’ <2018 반부패 주간> 청렴문화행사 개최 기사가 좋았습니다. 이 행사가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어 더 나은 사회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일순(충청북도 충주시)

직진하다를 읽으며 김영태 기자는 30년간 법과 제도의 모순, 비리를 파헤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믿음으로 기자의 도(道)를 지키기 위해 직진하는 사람으로 올바른 사회구현을 위해 일한 것 같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임(경기도 의정부시)

2019년 새롭게 바뀌는 국민인권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들의 2018년 청렴도 순위에 대한 기사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신규 발굴과제 중 하나로 부패수준의 과학적 진단·분석을 통해 ‘○○○○○’를 관리할 계획이다.
(힌트 : 권익포커스① 6p)

지난호 정답

채용비리

정답자

최준혁(대구광역시 수성구)
조영희(부산광역시 서구)
강예숙(인천광역시 연수구)

강병국(서울시 강동구)
김희용(경기도 수원시)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각 다섯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2019.1.17.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조정



경조사비

10 만 원 → 5 만 원

단,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



선 물

현행 5 만 원으로 유지

단,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가능